

부안동초등학교 6학년자치회의 회의록

부안동초등학교 6학년자치회의 회의록					
일시	24.06.25.	회의 장소	6학년 3반	기록	조은서
		참석자	6학년 16명 참석 중 16명 참석		
순	안건	회의내용			
6 학 년	돌아보기	<p><호국보훈의 달 행사 돌아보기> 그립톡 만들기, 6.25퀴즈, 필통 꾸미기, 미숫가루와 함께하는 퀴즈</p> <p>- 좋은 점: 미숫가루가 맛있었다. 6.25 전쟁 퀴즈로 6.25에 대해 알게 됐다. 퀴즈를 풀면서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.</p> <p>- 아쉬운 점: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해 아쉬웠다. 친구들이 줄을 질서있게 서지 않아 힘들었다. 많은 친구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정신없었다. 퀴즈 답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어 아쉬웠다. 애들이 문제를 안 풀고 미숫가루만 달라고 해 난감했다. 활동할 수 있는 테이블이 너무 적었다. 큐알코드에 접속하여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었다. 행사 진행을 하는 활동 재료가 부족했다.</p> <p>- 바라는 점: 나중에 2학기 때 행사를 운영한다면 질서를 지켜 하면 좋을 것 같다. 우리학년 말고도 급식실 등의 장소에 포스터를 붙여 홍보하면 좋겠다.</p>			
	주제 토의	<p>우리의 약속: <복도와 계단 사용을 위한 약속></p> <p>-1반: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하며 올라가지 않기, 복도에서 소리 지르지 않기.</p> <p>-2반: 복도에서 물 뿌리지 않기, 복도에서 간식 먹거나, 큰소리로 떠들지 않기, 복도에서 공으로 장난하지 않기. 계단에서 난간에 앉거나 기대지 않기, 계단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, 우측 통행하기.</p> <p>-3반: 계단에서 장난치지 않고 우측통행하며 한 칸씩 이동한다. 복도에서 길을 막지 말고 앞을 보며 가자.</p> <p>-4반: 우측통행하기, 다 같이 이동할 땐 한 줄로 가기, 계단 난간 타고 내려가지 않기, 소리 지르거나 이상한 행동하지 않기.</p> <p>-5반: 소리 지르지 않기, 길 막지 않고 우측통행하기.</p> <p>-6반: 계단에 앉아서 얘기 하지 말기, 뛰지 않기, 계단 두칸씩 내려가지 않기.</p> <p>-7반: 계단 손잡이 타고 내려오지 말기, 가위바위보 하며 오지 말기, 복도에서 떠들지 않기, 몰려다니지 않기.</p> <p><함께 지켜요!> 요약된 내용 종합해보기</p> <p>-계단: 난간 타고 내려가지 않고 뛰지 않기, 우측통행하고 내려갈 때 한 칸씩 내려가기, 가위바위보 하며 올라가지 않기.</p> <p>복도: 소리 지르지 않기, 여러명이 모여 있으면서 길 막지 않기</p>			

	<p>학년 자치활동 돌아보기</p>	<p><1학기 행사 돌아보기></p> <p><환경영화제 3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화가 재밌었다. 다른 학년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다. 골든벨 마지막 슬라이드에 써 있었던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 좋았다. 골든벨 베끼면서도 안 그랬다고 한 친구들이 있어서 아쉬웠다. <p><스승의 날 행사 2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꽃을 선생님께 직접 가서 주는 게 좋았다. 방과후에 남아서 작업하는 게 힘들었지만 티비에 아이들의 편지가 영상으로 나와서 좋았다. 직접 선생님들께 편지 쓰는 게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생님께 편지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서 좋았다. 행사를 진행할 때 한꺼번에 여러 명이 편지를 쓰러 와서 정신이 조금 없었다. <p><금연, 학교폭력 캠페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담배 풍선이 아이들의 샌드백이 된게 안타까웠다. 넓은 책상이 있는데도 작은 책상에서 하다보니 활동하는 데 불편했다. <p><호국보훈의 달 행사 10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친구들이 나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다.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. 퀴즈 상품으로 준비한 미숫가루를 좋아해줘서 좋았다. 그립톡 만들기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서 준비하는게 재밌었다. 행사 날이 6월 25일이어서 의미가 있어 좋았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